

2017.6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7년 6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주)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7.6.27	대전MBC 대회의실	6/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신성철, 정철상, 신종성, 강은혜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대표이사, 오승용 경영기술국장, 장래균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김미리 사업국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7	4	-	-	11	-	11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8	3	-	11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5건	5건	6월
교양	주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 소식 다양하게	식중독과의 한판승부!(6/15), 중고차 살 땐 이렇게!(6/19), 과일깎기와 아이들 도시락 꾸미기(6/22) 등 소개	6월
교양	4차 산업혁명 심층적으로 다루어지길	시사플러스(6/22)에서 시사르포 <4차 산업혁명 특별시의 조건>의 제목으로 4차산업혁명 심층적으로 다룸	6월
보도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적절하게 자막처리 하길	시사토론M 프로그램에서 “목마른 충남(6/4)”, “반복되는 시대책은(6/11)” 등에서 적절히 자막처리 함	6월
보도	과학관련 뉴스 활성화를	뉴스데스크에서 “노벨상수상자 강연(6/2)”, “4차 산업혁명 은퇴과학자 활용(6/18)” 등 과학 관련 뉴스 취급	6월
교양	교양 프로그램(전국이 보인다) 출연자 자막처리 시청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이 보인다” 출연자 자막처리(6/4, 6/11, 6/18, 6/25) 출연자 자막처리 변경해 보기좋게 처리함.	6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7. 5. 01. ~ 2018. 4. 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신성철	KAIST총장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과학기술단체	-
	송길현	목요언론인클럽 고문	목요언론인클럽	언론관련단체	-
위원	김종문	한화생명 충청지역본부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
위원	함진호	ETRI 표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ETRI	과학기술단체	-
위원	정철상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재)청소년과 사람사랑충남지회	청소년단체	-
위원	이상진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충남연구원	문화단체	-
위원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단체	-
위원	강은혜	대전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대전YWCA	소비자단체	-
위원	신종성	골프존 네트워크 대표이사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
위원	김은주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6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뉴스데스크(6/22)를 보니 대전시립미술관의 ‘헬로시티’ 전시전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작가에 대한 영어 인터뷰를 했는데, 자막이 나오지 않았다. 영어를 쉽게 알아들을 시청자가 많지 않다고 본다. 자막처리가 필요했다(김은주).	자막 관련 오류가 발생했다.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			
보도	뉴스데스크를 보면 앵커의 마지막 클로징 멘트 때 배경으로 엑스포 상징 다리와 스마트시티의 야경이 나온다. 그런데 스마트시티가 대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장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고 해도,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듯싶다)이기 때문에 위화감이 느껴진다. 다른 장소를 배경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기왕이면 엑스포 상징 다리 쪽으로 좌석배치를 했으면 좋겠다(김은주).	보도국 내 의견 수렴을 거쳐 배경화면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	
교양	시사플러스(6/1) “ 2017. 6. 1. AI구제역 가축매몰지, 과연 안전한가?”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였다. 침출수(가축 매립지에서 나오는 물)를 기간별로 채취하여 색상 변화 등을 보여주는게 비위가 상했지만, 평상시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 리얼하게 보여줘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다. 앞으로 구제역이나 AI 발생시 ①매몰처분 외에 사전·사후 접종 등 다른 방법이 없는지, ②매몰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방송에서 다루주면 좋겠고, 생명존중과 환경보호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김은주).	가축매몰지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한 상황이다. 토양 및 인간의 환경을 위협해 2차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말씀해 주신 사전·사후 접종법, 매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겠다.	○		
교양	“4차 산업혁명 특별시의 조건(시사플러스 6/22)”을 흥미있게 시청하였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에 대해 설명해준 점이 친절하게 느껴졌고 요즘 핫한 정재승 교수 인터뷰 영상도 삽입해서 프로그램에	4차 산업혁명은 대다수 시청자에게 여전히 낯선 개념이다. 그래서 최대한 시청자 눈높이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한국의 실리콘 밸리인 대덕연구단지가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지역 언론의	○		

	<p>대한 집중도를 높였다. 세계적인 바둑 챔피언들이 알파고에 지는 충격적 장면,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무인기계를 통해 주문하면서 겪는 불편함을 겪으면서 보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거부감이 컸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세먼지 진단, 주차공간 안내 등 일상생활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그 거부감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 프로그램의 포커스가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좋은 점을 부각시킨 것 같다.</p> <p>그런데 프로그램을 보고 나니 좋은 점은 ‘사물인터넷’ 관련 내용뿐인 것 같고, ‘인공지능’이나 ‘빅 데이터’의 경우는 결국 기계가 인간을 대신할 것이라는 점, 사생활이 없어질 것이라는 점 때문에 이를 직면하는데 두려움이 크다.</p> <p>4차 산업혁명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는 전문직종 사이에서도 팽배해 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는지’, ‘내 직업이 소멸하지 않는지’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편이 아닌 사람들의 우려와 대응방안에 대한 고민도 해보면 좋겠다(김은주).</p>	<p>의제 설정 역할을 위해 기획되었다.</p> <p>4차 산업혁명은 인간에게 밝은 면도 있지만 지적하신 대로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빅데이터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등도 상존한다. 최종적으로 기술혁명의 지향점은 인간에 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다룰 때 사람 중심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다.</p>			
<p>보도</p>	<p>‘뉴스 진행 맥락과 지역 시청자 정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뉴스데스크에서는 연중기획으로 ‘4차 산업혁명 총칭이 이끈다’를 제작 보도를 하고 있다.</p> <p>이 아이템이 뉴스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를 전면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를 검토해 보길 바란다. ‘총칭이 이끈다’라는 기획의 범위에 ‘충북 오송’ 등 지역이 포함되는지와 MBC충북과 협업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이승선)</p>	<p>좋은 지적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논의를 통해 검토하겠다.</p>			
<p>교양</p>	<p>6월 6일 현충일 뉴스프로그램과 교양 프로그램의 진행자의 맥락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뉴스데스크의 진행자와 현장 리포팅 기자의 의상은 현충일 분위기에 맞는 의상인 반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진행자와 리포터 의상은 그러지 못했다. 리포터의 경우 반소매와 하얀 와이셔츠가 현충일하고는 맞지 않았다. 남녀 MC 의상도 현충일 하고는 분위기가 맞지 않는다(이승선).</p>	<p>옳은 지적이다.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에 진행자 의상이 어울리지 못한 점, 시정토록 하겠다.</p>		<p>○</p>	

<p>보도</p>	<p>‘최악의 충청서남부 가뭄’과 ‘AI 재발 확산 우려 속 상황’, ‘후끈한 맥주축제’ 보도 맥락을 짚어보겠다.</p> <p>뉴스데스크의 5월 31일, 6월 1일, 6월 2일 뉴스에서는 ‘가뭄관련 뉴스’가 제1아이템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6월 3일에는 제4아이템으로 6월 4일에는 충남지역 시뉴스 역시 후순위로 다루어졌고 6월 5일에는 다시 최악의 가뭄, AI 뉴스가 제1아이템으로 복귀를 하였다.</p> <p>6월 3일(토) ‘수제맥주 유적페스티벌 열기 후끈’이 제1아이템으로, 6월 4일(일) ‘초여름 더위 수제맥주 축제상황’이 제1아이템으로 다루어졌다.</p> <p>주말 뉴스 맥락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뉴스의 아이템 제작과 배치는 시청자로서 무척 유감이다(이승선).</p>	<p>뉴스 편집 시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p>			
<p>보도</p>	<p>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도시발전을 혁신적으로 견인하는 목표를 갖고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을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p> <p>대덕연구개발특구와 KAIST,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우수한 인프라를 결집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p> <p>아쉬운 점은 아직 대덕연구단지와 대전 시민들 간에는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단지의 각 연구기관들은 대전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서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대전MBC에서 연구단지와 시민들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도록 보도를 통해 그 역할을 많이 해주길 바란다. 연구단지의 관련 뉴스를 전국 네트워크로 확산하면 좋겠다(함진호).</p>	<p>대덕특구 관련 뉴스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p>	○		
<p>보도</p>	<p>“4대강의 6개 보 수문 개방”의 타이틀이 언론에 많이 등장하였다. 대전MBC도 수문 개방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엄격하게 보자면 수문개방이라기 보다도 “보의 수위를 낮추는 개방”으로는 보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이상진).</p>	<p>보도 뉴스 제작 시 표현에 더욱 유의하겠다.</p>	○		
<p>보도</p>	<p>‘가뭄’ 관련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p>	<p>가뭄에 관련한 대안 보도를 지속적으로</p>	○		

	<p>이제 가뭄에 대한 현상적인 상황 보도에서 벗어나 가뭄에 대한 대안을 발굴해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지하댐 건설(지하에 큰 저수지)’,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등 가뭄대안에 대한 보도가 필요한 시점이다(이상진).</p>	<p>실시하고 있다.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p>			
<p>교양</p>	<p><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한 코너인 “뉴스&이슈”에서는 한 주간의 뉴스를 다양하게 접근 알기 쉽게 풀어서 전달해주고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나간 것을 단순히 정리해 보여주다 보니 새삼 ‘뉴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가 어색하다.</p> <p>지나간 것을 전달하는 것 보다는 당시 이런 뉴스가 왜 보도가 되었는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팩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어져야 된다고 본다.</p> <p>국제, 국내의 이슈는 다루면서 지역의 이슈는 소홀한 면이 없지 않다. 예를 들면 최근에 ‘유성터미널 무산’ 같은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루지 않았다. 지역의 이슈에 관해서도 접근하길 바란다.</p> <p>진행자가 클로징 멘트에 ‘더위에 덥다고 웅크리지 말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춥다고 웅크린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덥다고 웅크린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어법에 유의하길 바란다(송길현).</p>	<p>‘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지역의 종합 정보 프로그램이다. 주시청층인 주부들에게도 뉴스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코자 ‘뉴스&이슈’를 기획했다. 일주일에 화, 목요일 이틀에 걸쳐 국, 내외 주요 뉴스를 전달한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충분히 인식하나 현재의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다.</p> <p>지역의 이슈는 금요일 ‘간추린 주간브리핑’에서 다루고 있다. ‘유성터미널 무산’은 지역의 중요한 이슈라 시사플러스에서 방송될 예정이다.</p> <p>진행자의 어법에 맞지 않은 표현은 주의하겠다.</p>			